

• 마태복음 5:3

가장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인간의 원형,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인간적인 동시에 하나님다움에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순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원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성경은 우리의 부유함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서가 아니라 삶의 근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질 때,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로서 벌거벗고 가난해집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된 듯 교만했던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가난함’은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항복과 진심 어린 겸비함이 가난한 마음입니다(롬 7:24). 나 자신이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 ① 내 마음이 가장 가난했을 때는 언제였고, 왜 가난했습니까?
- ②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